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관한 研究

尹暢烈*

I. 序 論

天地自然과 人間은 어떻게 構成(Being)되어 있으며 어떻게 變化(Becoming)하고 있는가? 이러한 根源的인 질문에 解答을 求하기 위하여 人類는 太初 이래로 不斷히 探究 努力하여 왔고 그리고 東洋에서는 이에 대한 結論으로서 陰陽五行의 理論을 確立하였다. 陰陽五行의 理論은 과거의 낡은 遺産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人間과 宇宙의 實상을 파악하고 眞理를 探究하는 가장 重要的 理論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陰陽五行의 理論이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完全하게 제시되고 있는 文獻은 河圖와 洛書이다. 이 河圖와 洛書는 夏, 殷, 周 三代之 王朝에서 극히 重視되어 國家 차원에서 보존되고 관리되어 現在의 圖書館이라는 用語가 이 河圖와 洛書에서 기원한 것이다.

河圖와 洛書에서 時間的인 宇宙의 變化와 空間的인 天地의 實상이 陰陽五行의 原理에 의해 遺漏없이 表現되어 있지만 설명없이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고 內容이 深奧하여 初學者로서는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筆者는 河圖, 洛書의 由來에서 부터 그 構成 內容,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陰陽五行의 根本 原理를 研究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II. 河圖·洛書의 出現

1) 河圖와 洛書의 由來

現在의 많은 學者들은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眞理의 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여 圖象의 內容을 평가절하하거나 格下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宇宙의 內在的 秩序를 집약된 數로써 表現하고 있는 河圖와 洛書는 그 至高한 價値를 조금도 잃지 않고 있으며 그 簡明함에 反比例하여 宇宙의 眞面目을 우리에게 提示해 주고 있다.

河圖와 洛書의 명칭은 先秦時代의 典籍인 《尚書》의 〈顧命篇〉, 《論語》의 〈子罕篇〉, 《禮記》의 〈禮運篇〉, 《周易》의 〈繫辭典〉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尚書》의 〈顧命〉에는 “太玉과 夷玉과 天球와 河圖는 在東序라”¹⁾하여 西周의 成王(B.C 11세기) 당시에 이미 이 河圖가 국가의 보물로써 重視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論語》의 〈子罕〉에는 “鳳鳥不至하며 河不出圖하니 吾已矣夫”²⁾라 한 孔子의 말이 실려 있고 역시 孔子가 지은 《周易·繫辭傳》에는 “河出圖하며 洛出書어늘 聖人則之라”³⁾는 말이 記述되어 있다. 이는 河圖와 洛書가 孔子以前부터 크게 重視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으며 孔子도 그 價値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內容이라 할 것이다.

河圖는 伏羲氏께서 王天下할 때 龍馬가 河水에서 나왔는데 伏羲氏께서 그 등에 있는 旋毛의 모양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傳하여 지고 있으며 洛書는 禹임금께서 治水하실 때에 신령스런 거북이가 낙수에서 나왔는데 禹께서 그등에 배열되어 있는 무늬를 보고서 그린 것이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龍馬에 대해 玉齋胡氏(胡方平 字師魯 元代之 學者)는 周禮夏官에 있는 8尺以上の 말을 龍이라고 한다는데 根據하여 말이 特異하게 커서 龍처럼 보이는 말이라고 解釋하였다⁴⁾. 河圖를 圖라고 한데 대해 臨川吳氏(吳澄 字幼清 元代之 學者)는 말의 등에 있는 旋毛의 동그라미가 星象과 같기 때문에 圖라고 한 것이지 五十五數 外에 별도의 圖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⁵⁾.

1) 書經 : 朝鮮圖書株式會社編纂, 二以會影印, 1983, p.763.

2) 論語 : 世昌書館, 1980, 卷九 p10.

3) 周易 : 大田 學民文化社(貞篇), 1990, p.378.

4) 周易 ; 上揭書(元), p.32.

5) 周易 : 上揭書, p.32.

洛書를 書라고 한데 대해 臨川吳氏는 거북의 등의 무늬가 갈라진 모습이 글자의 字劃과 흡사하므로 書라고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보다는 現在 《書經》의 〈洪範〉條에 실려 있는 “初一은 曰五行이오 次二는 曰敬用五事오, 次三은 曰農用八政이오 次四는 曰協用五紀오 次五는 曰建用皇極이오 次六은 曰乂用三德이오 次七은 曰明用稽疑오 次八은 曰念用庶徵이오 次九는 曰嚮用五禮이오 威用六極”이라고 한 65字가 그림에 함께 덧붙여져 있으므로 洛書라고 한다⁶⁾는 說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從來로부터 伏羲氏가 河圖를 그리고 나서 이에 根據하여 八卦를 劃하시고 禹임금이 洛書를 그리고 나서 이를 法받아 洪範九疇를 陳하였다는 說이 傳해 내려오고 있다.(劉歆曰 伏羲氏 繼天而王하실새 受河圖而劃之하시니 八卦是也 오 禹治洪水하실새 賜洛書어시늘 法而陳之하시니 九疇是也라)⁷⁾

2) 河圖, 洛書 出現의 意義

河圖와 洛書는 그 出現과 圖象에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으며 重要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

첫째 河圖와 洛書는 人間이 人爲的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天垂象한 自然의 啓示를 받고 聖人께서 그린 神物이라는 점이다. 自古로 聖人은 말 없는 天地의 뜻을(天意) 把握하여 人類를 教化한 先覺者였던 것이다.

둘째 河圖와 洛書가 모두 물에서 出現한 것에 대해서 注意해 보아야 한다. 一般的으로 물은 東洋哲學에서 凝固性과 自律性(自動性)과 調和性의 세가지 特徵을 가지고 있는 宇宙의 本體라고 한다. 또 實際的으로 물은 그 性質이 맑고 투명하며 막힘없이 通하여 靈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生命의 根本이며 萬物의 根源인 물에서 宇宙의 根本的인 原理가 나오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셋째 河圖와 洛書가 모두 數로써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西洋의 數學에서 數는 단지 事物의 質量을 計算하며 測定하는 手段과 方法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東洋에서는 數 자체를 眞理의 대변자이며 哲學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周易의 繫辭下傳에서 “易者는 象也라”⁸⁾라 하였다. 이는 天地間의 모든 變化는 象으로써 나타난다는 意味인데 象이란 宇宙의 理致가 徵兆와 幾微로써 現狀界에 드리워진 것을 말한다. 즉 象은 理致의 드러난 모습으로 程伊川은 이를 易傳序에서 “至微者는 理也오 至著者는 象也라”⁹⁾ 하였다. 그러나 象은 無形에서 有形으로 轉

6) 漢書五行志：班固 中國, 中華書局, p.1316.

7) 周易：上揭書, p.32.

8) 周易：上揭書(貞), p.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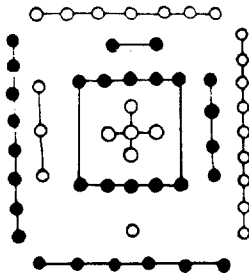
9) 周易：上揭書(元), p.192.

換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나므로 그의 可否 판단에는 現實의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象의 흐름에는 數가 동반하여 함께 흐르므로 우리는 正確한 數의 表現을 통해 象과 理를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즉 數는 象의 意味를 明確히 밝혀주고 象의 內容을 證明해 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象, 數, 理의 關係를 周易의 易說綱領에서 程子は “有理而後에 有象하고 有象而後에 有數니 易은 因象以知數라”¹⁰⁾ 하였고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數는 非氣不行하고 氣는 非數不立(數는 氣가 아니면 行치 않고 氣는 數가 아니면 證明되지 않는다)이라”¹¹⁾ 하였다. 이러한 數의 重要性에 대해 繫辭上傳 五章에서는 “極數知來之謂占”¹²⁾이라 하였고 十章에서는 “極其數하여 遂定天下之象”¹³⁾이라 하였다. 그리고 특히 九章에서 孔子는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이니 天數五오 地數五니 五位相得하며 而各有合하니 天數二十有五오 地數三十이라 凡天地之數가 五十有五니 此所以成變化하며 而行鬼神也라”¹⁴⁾하여 1에서 10까지 自然數의 數列의 變化를 통해 天地의 모든 變化原理를 밝혀 낼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理致에 根據하여 우리는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數象의 價値를 重要視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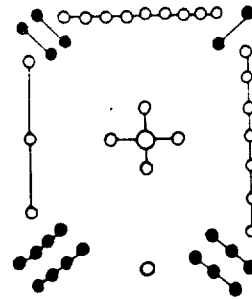
Ⅲ. 河圖와 洛書의 內容

1) 生成數 및 中數의 成立

먼저 河圖와 洛書의 그림을 그려 놓고서 說明해 보고자 한다.



河圖



洛書

10) 周易：上揭書, p.148.

1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書苑堂, 1976, p.16

12) 周易：上揭書, p.276.

13) 周易：上揭書, p.341.

14) 周易：上揭書, pp.310~313.

河圖와 洛書는 모두 白圈과 黑圈의 數로 表現되어 있으며 白圈은 陽數을, 黑圈은 陰數를 나타내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自然數의 數列에 있어서 1에서 5까지를 生數라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라 한다. 生數란 創造의 根本數로서 보이지 않는 生命의 本質을 나타내며 萬物의 運命을 決定하므로 命數라고도 부른다. 成數란 事物을 完成하는 數로써 完成된 事物은 形體를 이루므로 成數는 形數 또는 物數라고도 號稱한다.

宇宙의 運動은 水火가 變化의 根本을 이룬다. 이를 易에서 坎離作用이라 한다. 그런데 이 水火中에서도 創造의 本源을 이루어 生命의 뿌리가 되는 것은 水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은 五行에 있어 水에 配合이 되며 作用의 根本인 北方에 配屬되며 季節로는 새 生命을 準備하는 겨울이 된다. 火는 水의 對立되는 性質을 가지고 있으며 水가 極도로 分裂 發展된 對稱軸에 位置하므로 1 다음의 2는 火에 配合되며 陽이 가장 極盛한 南方과 여름이 또한 여기에 配屬된다. 木은 五行의 變化에서 水가 火까지 發展하는 前半期의 과정속에서 거치는 中間過程으로 生命의 發展을 主導하므로 3數가 여기에 配合되며 東方과 봄이 이에 應한다. 萬物이 생겨 나면 반드시 完成의 過程을 거쳐야 하며 또한 火에서 水로 統一되는 收斂過程의 後半期 正中에 位置하는 것은 金이다. 그러므로 順序에 있어 3의 다음에 位置하는 4는 金에 配合되며 方位적으로는 西方과 季節적으로는 가을이 이에 配屬된다. 다음으로는 나오는 5는 남은 土에 配合되는데 이 土는 水火·金木의 變化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純粹精氣로서 不偏不黨한 中和의 德을 갖추고 있어 水火·金木의 變化過程속에서 나타나는 相剋과 對立의 矛盾을 調和하는 性質이 있다. 그런데 5라는 숫자는 木·火의 陽運動過程의 變化인 $3+2=5$, 金·水의 陰運動過程의 變化인 $4+1=5$ 의 수식으로 나타나므로 陽도 陰도 아닌 (또는 陽性和 陰性を 다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中의 자리에 處해 있어 陰陽의 調節者로서는 더 없는 適格者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土는 5와 配合되며 方位로는 치우치지 않은 中央이, 季節로는 陽運動의 過程이 끝나고 陰運動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夏秋交叉期의 長夏에 配屬이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1(水), 2(火), 3(木), 4(金)의 生數는 각기 홀몸으로 創造의 精神만을 머금고 있을 뿐 萬物을 現實적으로 化生시켜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짝을 찾아줄 中媒者를 必要로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짝을 찾아 陰陽의 調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中媒者의 役割을 하는 것이 5土이다. 이 5土의 中媒役割에 의해 陽인 1水는 $5+1=6$ (水)의 陰을 만나게 되고 陰인 2火는 $5+2=7$ (火)의 陽을 만나게 되며 陽인 3木은 $5+3=8$ (木)의 陰을 만나게 되고 陰인 4金은 $5+4=9$ (金)의 陽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짝을 만나게 되며 이들의 陰陽調和에 의해 創造

와 變化運動이 實現되게 되는 것이다.(여기서 5의 中媒를 木·火·土·金·水가 다섯이므로 各各의 生數는 다시 木·火·土·金·水의 모든 氣運을 結合하여, 또는 거쳐서 자신의 짝을 만난다고도 解釋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重要的 點은 純粹精氣였던 5土 자신도 自化하여(다시 木·火·土·金·水의 氣運을 받아) 10의 짝을 이루어 陰陽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10이라는 數는 純粹精氣의 自化인 $5+5=10$ 으로도 表現될 수 있지만 $1(水)+2(火)+3(木)+4(金)=10$ 의 수식으로 表現되므로 5가 陽方位生數의 合($2+3$), 또는 陰方位生數의 合($4+1$)에 不過했던 것에 反해 그 倍의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을 統一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1·6 水, 2·7 火, 3·8 木, 4·9 金, 5·10 土의 結合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이 方位와 結合되어 表示되어 있는 그림이 河圖인 것이다. 그리고 生數는 生命의 本質을 이루므로 內에 居하고 成數는 完成된 事物의 形體를 나타내므로 外에 居하고 있다.

2) 河圖, 洛書의 特徵

河圖와 洛書의 差異點을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첫째 河圖는 다섯개의 生數로, 다섯개의 成數를 統率하되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니 대개 그 完全함을 들어 사람에게 보여주어 常數의 體를 말하여 주고 있고 洛書는 다섯개의 奇數로 4개의 偶數를 統率하여 各各 자신의 자리에 居하니 대개 陽에 主하여 陰을 統率하여 變數의 用을 나타내고 있다.(河圖는 以五生數로 統五成數而同處其方하니 蓋揭其全하여 以示人而道其常數之體也오 洛書는 以五奇로 通四偶數而各居其所하니 蓋主於陽하여 以統陰而肇其變數之用也라)¹⁵⁾

玉齋胡氏는 이를 다음과 같이 더욱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河圖는 生數와 成數로 陰陽을 나누어 다섯개의 生數의 陽(1, 2, 3, 4, 5)으로 다섯개의 成數의 陰(6, 7, 8, 9, 10)을 統率하여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여 陽은 內에 있고 陰은 外에 있어 生과 成이 相合을 이루니 交泰의 象이 된다.(1에서 10까지 10개의 數를 生數 다섯과 成數 다섯으로 陰陽으로 나눌 때 體가 되고, 始原이 되는 生數는 陽이 되며 用이 되고 現象으로 나타나는 成數는 陰이 된다) 洛書는 奇數와 偶數로 陰陽을 나누어 다섯개의 奇數의 陽으로써 네개의 偶數의 陰을 統率하여 各各 그 處所에 居호되 陽은 正方に 있고 陰은 偏方に 있어 奇數와 偶數가 서로 나누어 지니 尊卑의 자리가 된다.(1, 3, 5, 7, 9를 陽이라 하고 2, 4, 6, 8, 10을 陰이라 하는 것은 숫자 하나 하나에 重點을 두고서 外的인 作用으로 陰陽을 나눈 것이다)

15) 周易：上揭書, p.40.

(玉齋胡氏曰 河圖는 以生成으로 分陰陽하야 以五生數之陽으로 統五成數之陰而 同處其方하야 陽內陰外하야 生成이 相合하니 交泰之義也오 洛書는 以奇偶로 分陰陽호대 以五奇數之陽으로 統四偶數之陰而各居其所호대 陽正陰偏하야 奇偶既分 하니 尊卑之位也라)16)

둘째 河圖는 주로 生成의 體를 나타내고 있고 洛書는 주로 變化의 用을 나타내고 있다.

생성의 體를 이루는 것에 대해 朱子는

하늘이 1로 水를 生하고 땅이 6으로 이를 이루며
 땅이 2로 火를 生하고 하늘이 7로 이를 이루며
 하늘이 3으로 木을 生하고 땅이 8로 이를 이루며
 땅이 4로 金을 生하고 하늘이 9로 이를 이루며
 하늘이 5로 土를 生하고 땅이 10으로 이를 이루니

이것이 이른바 各各 合이 있다는 것이라 하였다.

(朱子曰 天이 以一生水而地 以六成之하고
 地 以二生火而天이 以七成之하고
 天이 以三生木而地 以八成之하고
 地 以四生金而天이 以九成之하고
 天이 以五生土而地 以十成之하니 此其所謂各有合焉者也라)17)

洛書가 變化의 用을 이루는 것은 洛書에는 統一을 主導하는 10數가 缺如되어 發展하고 變化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數의 配列도 河圖가 四方에 陰陽이 配合되어 安定을 이루고 있는 것에 反해 間方까지 八方位에 數가 配列되어 不安定속에서 變化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萬物은 非偶不立하고 非奇不行하는데 河圖는 10개의 數이므로 偶數가 되어 陰陽生成의 體를 나타내고 洛書는 9개의 수이므로 奇數가 되어 陰陽變化의 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陰陽之數가 異位하여 一陰一陽으로 變化의 길을 行하고 있는 것이다.

玉齋胡氏는 위의 內容을 結合하여 이르기를 河圖는 숫자가 열개이니 열개가 마주하여 그 體를 세우기 때문에 常이 되고 洛書는 숫자가 아홉개니 아홉개가 流行하여 그 用을 이루기 때문에 變이 된다. 이 常과 變에 대한 主張은 朱子가 特別히 各各 重點이 되는 것을 들어 말한 것일 뿐이지 河圖는 常을 오로지 하여 體만 있고 用이 없으며 洛書는 變을 오로지 하여 用만 있고 體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 하였다. (玉齋胡氏曰 河圖는 數十이니 十者는 對待以立其體故로 爲常이오 洛

16) 周易：上揭書, p.40~41.

17) 周易：上揭書, p.37.

書는 數九니 九者는 流行以致其用故로 爲變也니 象變之說은 朱子特各舉所重者爲言이오 非謂河圖 專於常하야 有體而無用이오 洛書 專於陰하야 有用而無體也라¹⁸⁾ 節齋蔡氏(蔡淵 字伯靜, 蔡元定の 長子이며 蔡沈의 兄이며 蔡格의 父로 蔡氏九賢 가운데 한분이다.)는 體와 用의 內容을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河圖는 數가 짝수이니(10개) 짝수는 靜하고 靜은 動을 用으로 삼기 때문에 河圖의 運動은 음이 모두 홀수가 되니 1과 6이 合하여 7이 되고, 2와 7이 合하여 9가 되고, 3과 8이 合하여 11이 되고, 4와 9가 合하여 13이 되고, 5와 10이 合하여 15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의 吉凶은 動에서 生하니 대개 靜한 것은 반드시 動한 뒤에 生하는 것이오 洛書는 숫자가 홀수(9개)이니 홀수는 動하고 動은 靜으로써 用을 삼기 때문에 洛書의 자리는 음이 다 짝수이니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의 合이 모두 10이 되는 것이다. 대개 動하는 것은 반드시 靜한 뒤에 이루어 진다.(節齋蔡氏曰 河圖는 數偶하니 偶者는 靜하고 靜은 以動爲用故로 河圖之行은 合이 皆奇니 一合六, 二合七, 三合八, 四合九, 五合十이니 是故로 易之吉凶은 生乎動하니 蓋靜者는 必動以後에 生也오 洛書는 數奇니 奇者는 動하고 動은 以靜爲用故로 洛書之位는 合皆偶니 一合九, 二合八, 三合七, 四合六이니 是故로 範之吉凶은 見乎靜하니 皆動者는 必靜而後에 成也니라¹⁹⁾)

셋째 河圖의 中央에는 5의 周圍를 10이 둘러 싸면서 짝하여 있지만 洛書에는 5밖에 없다. 中央은 造化의 根源이며 生命의 고향이다. 현상계의 모든 變化는 이 中央 5와 10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현실세계의 창조운동을 營爲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河圖와 洛書의 中心에 있는 5의 來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朱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문되 河圖, 洛書가 모두 5로써 中央에 居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 이르되 무릇 數의 시작은 一陰一陽일 따름이다. 陽의 象은 圓(둥금)이니 圓은 지름이 1이라면 둘레는 3이 되고 陰의 象은 方(네모짐)이니 方은 直徑이 1이면 둘레는 4가 된다. 둘레가 3인 것은 하나로써 하나를 삼기 때문에 그 一陽을 세배하여 3이 되고 둘레가 4인 것은 둘로써 하나를 삼기 때문에 그 一陰을 두배하여 2가 되니 이것이 이른바 參天兩地인 것인 것이다. 이것이 河圖, 洛書의 數가 모두 5로서 中心을 삼는 理由이다. 그러나, 河圖는 生數로써 主를 삼기 때문에 가운데의 5는 다섯개 生數의 象을 갖추고 있는 것이니 中에서 下의 一點은 天一의 象이고 上의 一點은 地二의 象이고 左의 一點은 天三의 象이고 右의 一點은 地四의 象이고 中의 一點은 天五의 象이 된다. 洛書는 奇數로써 主를 삼기 때문에 가운데가

18) 上揭書, p.41.

19) 上揭書 p.57

5가 되는 理由는 또한 五奇數의 象이 되니 下의 一點은 天一의 象이 되고 左의 一點은 天三의 象이 되고 中의 一點은 天五의 象이 되고 右의 一點은 天七의 象이 되고 上의 一點은 天九의 象이 된다고 하였다. (曰其皆以五로 居中者는 何也오 曰 凡數之始 一陰一陽而已矣라 陽之象은 圓이니 圓者는 徑一而圍三이오 陰之象은 方이니 方者는 徑一而圍四라 圍三者는 以一爲佚故로 參其一陽而爲三이오 圍四者는 以二爲一故로 兩其一陰而爲二니 是所謂參天兩地者也라 三二之合則 爲五矣니 此河圖洛書之數 所以皆以五爲中也나 然이나 河圖는 以生數로 爲主故로 其中之所以爲五者는 亦具五生數之象焉이니 其下一點은 天一之象也오 其上一點은 地二之象也오 其左一點은 天三之象也오 其右一點은 地四之象也오 其中一點은 天五之象也라 洛書는 以奇數로 爲主故로 其中之所以爲五者는 亦具五奇數之象焉이니 其下一點은 亦天一之象也오 其左一點은 亦天三之象也오 其中一點은 亦天五之象也오 其右一點은 則天七之象也오 其上一點은 則天九之象也니 其數與位 皆三同而二異하니 蓋陽不可易而陰可易이니 成數는 雖陽이나 固亦生之陰也니라²⁰⁾)

河圖와 洛書의 中央에 5가 있다는 것은 天地는 五行의 氣運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五行의 原理가 東西南北의 四方과 春夏秋冬의 四季에 作用하고 있음을 象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河圖의 中央 5의 表面에는 10數가 있다. 이 10數는 中의 5가 自化한 數이며 四方 生數의 精神을 모두 가지고 있는 中의 中이다. 洛書의 變化 發展은 中央의 5土의 作用에 의해서 先導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5는 10土에 비해서 能力의 반 밖에 所有하고 있지 못한 未完成의 土이다. 그러나, 河圖에는 10土가 存在하고 있으므로 統一과 綜合의 能力까지를 俱有하고 있다. 그렇다면 洛書는 統一數인 十이 전혀 存在하지 않고 있는가? 洛書의 數를 가로로, 세로로 대각선으로 각기 合하면 모두 15가 되고 作用은 하나 드러나지 않는 中央의 5를 除去하고 나면 모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것을 보면 洛書는 비록 5土에 의해 分裂의 陽運動을 進行하고 있지만 裏面的으로는 統一을 指向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河圖의 中央에 있는 5와 10을 合하면 15가 된다. 이 15數는 宇宙 生命의 根源處이며 創造의 本源이 되는 곳이다. 그리고, 洛書의 縱橫과 對角線의 合이 모두 15가 된다는 것은 現象世界는 宇宙 造化의 根源자리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음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또 15가 變化의 軸이며 中心이 되는 理由는 生數 1, 2, 3, 4, 5의 合이 15가 되며 成數中 太陽, 太陰數 9, 6의 合이 15가 되며 少陽, 少陰數 7, 8의 合이 15가 되는 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四象數의 各

20) 上揭書, pp.42-43.

各의 合이 15가 된다는 것은 現象界의 變化가 宇宙의 本體에 뿌리를 박고 이루어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段落을 마치기 전에 言及하고 지나가야 할 事項이 하나 있다. 우리는 一般的으로 10數圖를 河圖라하고 9數圖를 洛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로 하여 10數圖가 洛書이고 9數圖가 河圖라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宋代의 劉牧에 의해서 主張되었고, 그후 劉牧의 易數鉤隱圖를 踏襲한 朱震 등이 이 主張을 繼承하고 있다. 劉牧은 이 說이 陳搏(希夷先生)에게서 나왔다고 假託하고 있지만 先儒들의 說과 符合하지 않고 理致的으로 맞지 않는다. 漢의 孔安國, 劉向, 劉歆, 北魏의 關朗(子明), 宋의 邵雍 등이 모두 10數圖를 河圖라 하고 9數圖를 洛書라 하였고, 書經의 洪範에서 분명하게 하늘이 禹임금에게 洪範九疇을 내려 주었다 하였으니 劉牧의 說은 마땅히 否定되어야 할 것이다.

IV.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關한 考察

1) 太極, 陰陽, 四象 및 八卦의 分化

河圖와 洛書는 天地의 構成原理와 四時의 變化 原理를 含蓄하고 있는 宇宙의 靑寫眞이다. 周易의 繫辭上傳 十一章에서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라 하였다. 이는 天地間의 모든 萬物이 하나의 原理에 뿌리를 박고 陰陽 動靜의 運動을 反覆하면서 變化 發展해 감을 說明하고 있는 內容이다. 朱子는 萬物의 本體인 太極에 대해 나무의 뿌리와 같고 탑의 꼭대기와 같은 根源的인 理致로 氣가 아닌 理라고 하였으며 河圖, 洛書의 中央자리라고 言及하였다. (朱子曰 太極者는 象數未形而其理已具之稱이요 形器已具而其理無朕之目이니 在河圖洛書에 皆虛中之象也라²¹⁾)

兩儀는 陰儀와 陽儀를 말한다. 陰陽은 太極의 運動으로 因하여 動而生陽하고 動極而靜하며 靜而生陰한다. 朱子는 河圖洛書에서 奇偶가 이에 該當한다고 하였다. (朱子曰 太極之判에 始生一奇一偶而爲一畫者 二니 是謂兩儀니 其數則陽一而陰二오 在河圖洛書則奇偶是也라²²⁾) 또 河圖와 洛書에 中數를 變 奇數의 合 二十과 偶數의 合 二十이 陰陽이 된다고도 하였다. (朱子曰 奇數二十 偶數二十者는 兩儀也라²³⁾)

21) 上揭書, p.66.

22) 上揭書, pp.66-67.

23) 上揭書, p.51.

四象은 陰陽이 2次 分化하여 生한 事物形成의 基本 뼈대를 일컫는 말로 太陽 少陰 少陽 太陰의 넷으로 構成된다. 朱子는 이에 대해 兩儀의 위에 각각 一奇 一偶를 生하여 二畫이 된것이 四니 이것이 四象이다. 그 位는 太陽이 一, 少陰이 二, 少陽이 三, 太陰이 四이고 그 數는 太陽이 九, 少陰이 八, 少陽이 七, 太陰이 六이다. 河圖로 말한다면 六(太陰之數)은 一(太陽之位)이 五를 얻은 것이고, 七(少陰之數)은 二(少陰之位)가 五를 얻은 것이고, 八(少陽之數)은 三(少陽之位)이 五를 얻은 것이고, 九(太陽之數)는 四(太陰之位)가 五를 얻은것이다. 洛書로 말한다면 九는 十分에서 一의 나머지요 (10-1=9), 八은 十分에서 二의 나머지요 (10-2=8), 七은 十分에서 三의 나머지요 (10-3=7), 六은 十分에서 四의 나머지이다.(朱子曰 兩儀之上에 各生一奇一偶而爲二畫者四니 是謂四象이니 其位則太陽이 一이요 少陰이 二요 少陽이 三이요 太陰이 四오 其數則太陽이 九오 少陰이 八이요 少陽이 七이요 太陰이 六이다 以河圖로 言之則六者는 一而得於五者也오 七者는 二而得於五者也오 八者는 三而得於五者也오 九者는 四而得於五者也오 以洛書로 言之則九者는 十에 分一之餘也오 八者는 十에 分二之餘也오 七者는 十에 分三之餘也오 六者는 十에 分四之餘也라²⁴⁾)

八卦는 八面의 分別象을 卦象으로 나타낸 것이다. 朱子는 이에 對해 이르기를 四象의 위에 各各 一奇(一) 一偶(--)를 生하여 三畫이 된 것이 八이니 이에 三才가 大略的으로 갖추어져서 八卦의 名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자리는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이니 河圖에 있어서는 乾坤離坎이 四實에 分居하고 兌震巽艮이 四虛에 分居하며 洛書인즉 乾坤離坎이 四方에 分居하고 兌震巽艮이 四偶에 分居한다고 하였다.(朱子曰 四象之上에 各生一奇一偶而爲三畫者八이니 於是에 三才略具而有八卦之名矣라 其位則乾一兌二離三震四巽五坎六艮七坤八이니 在河圖則乾坤離坎이 分居四實하고 兌震巽艮이 分居四虛하며 在洛書則乾坤離坎이 分居四方하고 兌震巽艮이 分居四隅也니라²⁵⁾)

以上的 內容을 綜合해 보면 宇宙의 窮極的인 原理인 太極으로 부터 陰陽, 四象, 八卦가 分化하는 것이 四物이 分化 發展하는 根本 原理인데 河圖와 洛書의 數象이 이를 빠짐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河圖 洛書의 陰陽區分과 先後天

河圖와 洛書 自體를 陰陽으로 區分하면 河圖는 陰에 屬하고 洛書는 陽에 屬한다. 이는 첫째로 河圖에는 總 10개의 숫자(陰)가 存在하고 있으며 洛書에는 總 9개의 숫자만 존재하여 陰陽으로 區分되고 있다.

24) 上揭書, p.67.

25) 上揭書, pp.67-68.

둘째로 河圖에는 陰陽이 正配合되어 同居하고 있는데 비해 洛書는 陽이 正方에서 間方에 있는 陰을 統率하여 陽이 主導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

셋째로 河圖의 總合은 55인데 이중 陰數의 合이 30, 陽數의 合이 25로 陰多陽少하고 洛書의 合은 45인데 陽數의 合이 25 陰數의 合이 20으로 陽多陰少하다. 또한 河圖는 陽數 5, 陰數 5로 正陰正陽의 安靜狀態를 이루고 있지만 洛書는 陽數五, 陰數四로 陽多陰少하다.

넷째로 河圖의 中心에는 10의 中數(10은 陰)가 主導的인 作用을 하고 洛書의 中心에는 5라는 中數(5는 陽)가 主導的인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5는 陽土로써 發展(生長)을 先導하며 10은 陰土로써 統一(收藏)을 先導한다. 따라서 韓東錫先生은 河圖는 自然數가 統一하는 象을 表示한 것이고 洛書는 自然數가 發展하는 象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河圖, 洛書의 先後天에 관한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先後天은 두 가지 側面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未生之前을 先天이라고 已生之後를 後天이라고 하는 境遇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先天的으로 훌륭한 資質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先天이 不實하다느니 하는 말을 쓰는데 이는 어머니의 母胎속에 있던 時間을 先天이라 하고 出生한 以後를 後天이라고 하는데 根據한 것이다. 즉 이는 天理가 具體的으로 現實化(現象化)되기 前의 段階를 先天이라 하고 天理가 變化하여 現實化된 以後를 後天이라 하는 것이다. 河圖, 洛書의 先後天 配合에 있어서 모든 先儒들과 易學研究者들은 河圖를 先天象이라고 洛書를 後天象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이 어머니 懐속에서는 열개의 구멍으로써 (九竅+臍帶) 生을 營爲하며 10個月 동안 길러지는 모습이 河圖에 列舉된 10개의 數와 一致하여 그 秩序整然히 配列된 모습을 天地創造의 設計圖에 比할 수 있으므로 河圖를 先天圖라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머니 懐속에서 나온 뒤에는 九竅(아홉개의 구멍, 즉 耳目口鼻, 前陰, 後陰)의 作用으로 살아 가므로 洛書의 9數와 配合되며 또 變化하고 動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洛書를 後天圖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河圖는 天地創造의 設計圖로서 生成의 基本原理를 담고 있는 體에 該當되고 洛書는 基本原理가 現實속에서 順次的으로 풀려져 나와 變化하는 用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河圖先天, 洛書後天에 異意가 없었던 것이다.

先後天의 두번째 意味는 이미 現實化되어 있는 時間을 先後 陰陽으로 나누어 前半期의 陽의 時間帶를 先天이라 하고 後半期의 陰의 時間帶를 後天이라하는 境遇이다. 이것은 時間의 先後를 가지고 나눈 것이므로 하나의 週期를 이루는 單位 時間속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다. 一日 속에도 午前은 先天이 되고 午後는 後

天이 되며 한달도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는 滿月이 되어가는 過程으로 先天이 되고 보름에서 그믐까지는 달이 이지러지는 後天이 된다. 그리고, 1年の 變化에 있어서 草木이 發芽하여 成長해가는 봄, 여름의 시간은 날씨도 따뜻하고 氣運도 分裂하는 陽의 時間帶로 先天이 되고, 草木이 結實하여 貯藏되는 가을 겨울의 시간은 날씨도 추워지고 氣運이 收斂 退藏하므로 陰의 時間帶가 되고 後天이 된다. 이런 觀點에서 河圖와 洛書의 先後天을 살펴보면 5土가 用事하여 陽의 時間帶를 이루는 洛書가 先天象이 되고 10土가 用事하여 陰의 時間帶를 이루는 河圖는 後天象으로 倒轉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 봄·여름에는 洛書의 中央에 있는 5土가 用事하면서 分裂·發展을 先導하고 가을·겨울에는 河圖의 中央에 있는 10土가 用事하면서 統一·收藏을 先導한다. 여기서 우리는 時間的으로 봄, 여름에는 洛書의 圖象이 支配하고 가을, 겨울에는 河圖의 圖象이 支配하게 된다는 重要한 事實을 알게 되는 것이다.

3) 陰陽에 關한 考察

天地間은 一陰一陽이 五行속에서 作用하고 太極이 中心에서 變化의 原動力을 提供해 주고 있는데 不過하다. 陰陽은 五行의 骨幹을 이루고 五行은 陰陽의 枝葉을 이루어 서로 分離될 수 없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河圖, 洛書에 나타난 陰陽의 原理와 五行의 原理를 區分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陰陽, 五行의 絶對性이다. 河圖와 洛書가 陰陽의 關係를 이루면서 各方位에서 陰陽의 配合關係를 이루고 있고 또 河圖, 洛書가 모두 中心에 5土가 자리잡고 있는데 天地間의 모든 萬事, 萬物은 陰陽과 五行의 原理가 絶對的으로 支配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河圖의 中央이 5와 10의 陰陽配合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形而上의 本體世界도 陰陽의 原理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陰陽, 五行의 循環性이다. 陰陽, 五行의 原理는 直線的으로 進行하는 것이 아니라 陽(木·火 陽)과 陰(金·水 陰)이 交代하고 木·火·土·金·水가 循環하면서 變化를 反復하고 있는 것이다. 《周易》에서 一陰一陽之謂道라 하였는데 이러한象이 河圖와 洛書의 關係속에 또는 自體의 圖象속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陰陽의 對立性이다. 對立이란 相互 牽制하고 抑制하는 모습인데 水·火의 對立, 木·金의 對立이 나타나면 河圖와 洛書의 對立이 나타난다.

넷째 陰陽의 相輔性이다. 陰陽은 서로 反對되는 性質로서 對立하고 있지만 이러한 對立의 結果 자신의 不足한 點을 補充받고 結果的으로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陰과 陽은 相互 依存하는 가운데서 創造의 目的을 完成하게 되는 것이다. 1水와 6水의 對立과 調和, 2火와 7火의 對立과 調和, 3木과 8木의 對立과

調和, 4金과 9金の 對立과 調和, 5土와 10土的 對立과 調和뿐만 아니라 水·火, 金·木의 對立과 調和, 그리고 河圖와 洛書 자체의 對立과 調和의 길속에서 生命의 目的을 完遂하게 되니 陰과 陽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全體의 兩面인 것이다.

다섯째 陰과 陽은 서로 平衡을 이루고 있다. 平衡은 絶對 平衡과 相對 平衡으로 나눌 수 있다. 相對 平衡은 動態 平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絶對 平衡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河圖의 總合인 55數에서 性質이 中道的인 中央의 5와 10을 除하면 陰陽의 合이 各各 20으로 平衡을 이루며 天數 5, 地數 5로서 역시 陰陽의 平衡을 이루고 있다. 洛書에서도 역시 中數 5를 除하면 陰陽數의 合이 各其 20으로 平衡을 이룬다. 또 河圖의 總合인 55와 洛書의 總合인 45를 合하면 100이 되는데 陰數의 合이 50이 되고 陽數의 合이 50으로 絶對 平衡을 이룬다. 相對的 平衡은 陰陽의 消長속에서 維持되는 平衡狀態를 意味한다.

여섯째 循環의 過程속에서는 必然的으로 陰陽의 消長이 同伴된다. 洛書를 例로 들면 1은 正北쪽에 位置하여 1年中의 陰의 極으로 節候上 冬至에 該當되고 9는 正南쪽에 位置하여 1年中 陽의 極으로 節候上 夏至에 該當된다. 1에서 9까지는 陰消陽長의 過程이 되므로 찬 氣運에서 더운 氣運으로 變하고 9에서 1까지는 陽消陰長이 되므로 더운 氣運에서 찬 氣運으로 變한다. 3은 東쪽에 位置하여 節候上 春分에 該當되어 따뜻하고 7은 西쪽에 位置하여 節候上 秋分에 該當되어 氣候가 서늘하게 되어 消長의 過程中 陰陽이 相半하는 자리가 된다.²⁶⁾

일곱째 陰陽이 서로 互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互根이란 陽은 陰에 뿌리를 두고 나오며 陰은 陽에 뿌리를 두고 나와 서로 依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根據는 圖書에 있어 生數가 陽이면 成數가 모두 陰이며 生數가 陰이면 成數가 모두 陽이 되어 表裏의 陰陽이 서로 共棲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雲莊劉氏(劉燾:字晦伯, 宋代人)는 水·火와 金·木의 差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水는 陰이지만 天一에서 生하고 火는 陽이지만 地二에서 生하니 이는 巴야흐로 生할 때에 陰陽이 互根하기 때문에 그의 運行에 있어 水는 子位의 極陰之方에 居하지만 陽은 이미 子에서 生하고 火는 午位의 極陽之方에 居하지만 陰은 이미 午에서 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木은 天三에서 生하니 오로지 陽에 屬하기 때문에 봄에 行하고 또한 陽에 屬하며 金은 地四에서 生하니 오로지 陰에 屬하기 때문에 가을에 行하고 또한 陰에 屬하니 陰陽이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개 水·火는 氣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陰陽이 交合하는 처음에 그 氣運이 서로 互根하는 오묘함이 있지만 木은 陽이 發達한 것이고 金은 陰의 收斂으로 一定한 바탕이 있으니 이것이 水·火와 不同한 理由이다.(雲莊劉氏曰 水는 陰也로되 生於

26) 楊力: 周易과 中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1993, p.162.

天一하고 火는 陽也로되 生於地二하니 是其方生之始에 陰陽이 互根故로 其運行에 水居子位極陰之方而陽已生於子하고 火居午位極陽之方而陰已生於午어니와 若木은 生於天三하니 專屬陽故로 其行於春하고 亦屬陽이오 金은 生於地四하니 專屬陰故로 其行於秋하고 亦屬陰하니 不可以陰陽互言矣라 蓋水火는 未離乎氣하니 陰陽交合之初에 其氣自有互根之妙어니와 木則陽之發達이오 金則陰之收斂而有定質矣니 此其所以與水火로 不同也니라)27)

思齋翁氏(翁泳, 字永叔, 宋代人)의 다음의 말도 이에 대한 參考가 된다. 河圖에서 陰陽의 자리는 生數가 主가 되고 成數가 配合되니 東北이 陽方이 되니 奇數로써 主張을 삼되 配合된 數는 偶數요, 西南이 陰方이 되니 偶數로써 主張을 삼되 配合된 數는 奇數이다.(思齋翁氏曰 河圖에 陰陽之位는 生數爲主而成數配之하니 東北이 陽方則主之以奇而與合者偶오 西南이 陰方則主之以偶而與合者奇也라)28)

朱子는 또 四象의 位와 數로써 陰陽이 互根함을 說明하고 있다. 老陽의 자리는 1이오, 老陰의 자리는 4어늘 이제 河圖에 老陽의 9가 4의 밖에 居하고 老陰의 6이 문득 1의 밖에 居하니 이는 老陰老陽이 互藏其宅한 것이오, 少陰의 자리는 2오, 少陽의 자리는 3이로되 河圖에 少陰의 8이 3의 밖에 居하고 少陽의 7이 2의 밖에 居하니 이는 少陰, 少陽이 互藏其宅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1과 6이 함께 으뜸이 되니 1은 老陽의 자리이고 6은 老陰의 數며 4와 9가 벗이 되니 4는 老陰의 자리가 되고 9는 老陽의 數가 되니 이는 진실로 老陽, 老陰의 配合이지만 그러나 陽이 陰位에 居하고 陰이 陽位에 居하니 또한 老陽, 老陰이 互藏其宅한 것이오, 2와 7이 친구가 되니 2는 少陰의 자리요, 7은 少陽의 數이며 3과 8이 道를 함께하니 3은 少陽의 자리이고 8은 少陰의 數니 이는 二少의 配合이지만 그러나 또한 陽이 陰位에 居하고 陰이 陽位에 居하니 또한 少陽과 少陰이 互藏其宅한 것이다.(朱子曰 老陽之位는 一이오 老陰之位는 四어늘 今河圖에 以老陽之九로 居乎四之外而老陰之六으로 却居乎一之外하니 是老陰老陽이 互藏其宅也오 少陰之位는 二오 少陽之位는 三而河圖에 以少陰之八로 居乎三之外하고 少陽之七로 却居乎二之外하니 是少陰少陽이 互藏其宅也니라 又曰一六이 共宗하니 一爲老陽之位오 六爲老陰之數며 四九爲友하니 四爲老陰之位오 九爲老陽之數니 此固二老之合이나 然이나 陽居陰位하고 陰居陽位하니 亦二老互藏其宅也오 二七이 爲朋이니 二爲少陰之位오 七爲少陽之數며 三八이 同道하니 三爲少陽之位오 八爲少陰之數니 此則二少之合이나 然이나 亦陽居陰位하고 陰居陽位니 亦二少互藏其宅也니라)29)

27) 周易：上揭書, pp.38~39.

28) 周易：上揭書, p.39.

29) 周易：上揭書, pp.49~50.

여덟째로는 陰陽의 轉化性이 나타나 있다. 轉化性이란 陽이 極한 狀態에서 陰으로 轉化하고 陰이 極한 狀態에서 陽으로 轉化하는 것으로 《內經》에서는 熱極生寒, 寒極生熱, 重陰必陽, 重陽必陰 등으로 說明하고 있다. 陰陽五行의 運用原理가 表示되어 있는 洛書를 보면 西北方에 太陰數 6, 南方에 太陽數 9가 配置되어 겨울에 陰이 가장 盛하고 여름에 陽이 가장 盛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正北方에는 1이 配置되어 있고 西南方에는 2가 配置되어 陰極을 이어 陽이 始生하고 陽極을 이어 陰이 始生하는 모습이 提示되어 있다. 모든 萬物은 極則返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과 겨울은 陰陽의 氣運이 가장 極盛한 때이므로 이러한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로는 陰陽이 分容性을 살펴볼 수 있다. 分容性이란 陽속에 다시 陰과 陽이 있고 陰속에 다시 陽과 陰이 있어 계속 細分해 나가더라도 陰과 陽으로 分離되는 性質이 있는 것이다. 河圖와 洛書는 먼저 하도의 陽과 洛書의 陰으로 나뉘어진다. 河圖는 다시 木火의 陽과 金水의 陰으로 나눌 수 있으며 木火의 陽도 木陽, 火陰(이것은 裏面的으로 陰陽을 나눈 것이고 現實的으로는 木陰, 火陽이 된다)으로 나뉘어지고 木도 3의 陽木과 8의 陰木으로 다시 나뉘어 지는 것이다. 이처럼 陰陽은 계속 細分해 나갈 수 있는데 이를 《內經》의 〈陰陽離合論〉에서는 陰陽者는 數之可十이면 推之可百이오 數之可千이면 推之可萬이니 萬之大는 不可勝數나 然이나 其要는 一也라 하였다.

끝으로 한가지를 더 언급해 본다면 陰陽運動의 創造性이다. 陰陽은 相互作用하고 그 結果로써 새로운 生命을 創造해 낸다. 天陽과 地陰이 相互作用하여 人間과 萬物을 길러내고 夫婦가 家庭을 이루어 자식을 길러 내듯이 陰陽의 循環은 生生不已하여 地上의 萬物이 끊임없이 持續될 수 있는 基盤을 이루어 준다.

4) 五行에 關한 考察

五行이란 陰陽이 流行하는 過程이 다섯의 差別性을 나타내면서 循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들 다섯은 서로의 사이에서 協助와 促進의 關係가 成立하기도 하여 牽制와 均衡속에서 過不及이 없이 中道의 길을 걸어가면서 創造의 目的을 遂行해 나간다. 다섯개의 性質은 木, 火, 土, 金, 水로 區分이 된다. 이들 사이의 相互資生, 相互助長, 相互促進의 關係를 相生이라 하는데 이 順序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며 이는 萬物이 生生不息하게 하는 바탕을 이룬다. 五行사이의 相互牽制, 相互抑制, 相互克伐의 關係를 相克이라 하는데 이는 克을 위한 克이 아니라 相生의 過程이 순탄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生의 裏面에서 生을 保護하고 生을 推進하고 生을 堅實하게 해주는 必要性이며, 形體를 이루

고 精神을 기르는 生의 積極的인 作用인 것이다. 우리는 動物의 世界가 天敵이 있음으로 해서 더 強하게 되고 滅亡하지 않게 되며 人間의 世界도 善을 保護하고 善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惡을 斷罪하고 犯罪者를 隔離하는 것을 볼 때 相克이라는 것은 相生의 裏面 또는 相生이 이루어지는 原理를 說明하고 있는 相生의 또 다른 側面이라고 理解해야 할 것이다. 즉 生의 過程을 보면 裏面에서는 相克의 原理가 作用하고 이 結果 現實의으로는 相生의 結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겨울의 凝固된 水는 土克水의 過程을 거쳐야만 자신의 軀殼을 깨트리고 木의 단계로 轉換하며 木은 金克木의 過程을 거치면서 자신의 形을 이루고 火의 단계로 進入한다. 木은 氣運이 統一 集中되어 強力한 生을 湧出하는 것인데 金의 抑制로 이 機能을 喪失하고 氣運이 分散되니 이것이 곧 火인 것이다. 火는 水의 克을 받아서 發展의 陽過程에 대한 중지부를 찍고 土의 過程을 거치게 되는데 氣運이 水의 克으로 分散의 힘이 抑制되어 스스로 뺏어나가는 機能을 完全히 喪失하는 단계가 바로 土로 轉換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無化된 土는 木의 克을 받으면서 자기의 形을 만들고 金의 精神을 만들며 金은 火의 克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形을 단단하게 하고 水의 精神을 創造하는 것이다. 위의 內容속에서 우리는 外部의 五行의 形은 相克作用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內部의 精神은 이 過程속에서 相生의 順序로 저절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研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이상의 內容을 檢討해 보면 相生과 相克이라는 것은 同時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一般的으로 河圖는 相生의 原理를 說明하고 있고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河圖를 보면 北方의 水가 東方의 木을 生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左旋하면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의 過程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으며 洛書를 보면 北方의 水가 西方의 火를 克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右旋하면서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의 過程으로 進行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겉에 드러난 一面만을 언급한 것으로 그 裏面을 보면 河圖에서는 相克의 原理가 作用하고 있고 洛書에는 相生의 原理가 同時에 作用하여 生의 極은 克으로 發展하고 克의 極은 生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음을 遺漏없이 보여 주고 있다. 思齋翁氏는 이의 原理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河圖 運行의 順序는 北에서 東으로 가 左旋相生하는 것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마주보고 있는 자리는 北方의 1, 6 水가 南方의 2, 7 火를 克하고 西方의 4, 9 金이 東方의 3, 8 木을 克하여, 相克하는 것이 이미 相生하는 가운데 붙어 있고, 洛書 運行의 順

序는 北에서 서로 가 右轉相克하는 것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마주하고 있는 자리를 보면 東南方의 4, 9 金이 西北方의 1, 6 水를 生하고 東北方의 3, 8 木이 西南方의 2, 7 火를 生하니 그 相生하는 것이 이미 相克하는 가운데 붙어 있으니 대개 造化의 運行이 生하기만 하고 克하지 않으면 生한 것을 무엇으로 裁制할 수 없고 克하기만 하고 生이 없으면 때로 間斷하게 되니 이는 河圖, 洛書 生成의 奧妙함이 각각 스스로 完全히 갖추어 지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니라.(思齋翁氏曰 河圖運行之序는 自北而東하여 左旋相生이 固也나 然이나 對待之位則北方一六水가 克南方二七火오 西方四九金이 克東方三八木而相克者 已寓於相生之中이어니와 洛書運行之序는 自北而西하여 右轉相克이 固也나 然이나 對待之位則東南方四九金이 生西北方 一六水하고 東北方 三八木이 生西南方 二七火하니 其相生者가 已寓於相克之中이니 蓋造化之運이 生而不克則生者를 無從而裁制오 克而不生則 克者가 有時而間斷이니 此圖書生成之妙가 未嘗不各自全備也니라.)³⁰⁾

여기서 五行의 順序에 대한 內容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木·火·土·金·水라 부르는 것은 相生의 順序로 氣를 爲主로 언급한 것이고 水·火·木·金·土는 質을 爲主로 언급한 것이다. 이를 雙湖胡氏(胡一桂, 字 庭芳, 元代의 學者)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五行은 質은 땅에 갖추어져 있고 氣는 하늘에서 運行하니 質으로써 말하면 水·火·木·金·土니 天地生成의 順序를 取한 것이고 氣으로써 말하면 木·火·土·金·水니 春夏秋冬 運行의 順序를 取한 것이다.(雙湖胡氏曰 五行이 質具於地하고 氣行於天하니 以質言則曰水火木金土니 取天之生成之序也오 以氣言則曰木火土金水니 取春夏秋冬運行之序也니라)³¹⁾

唐의 孔穎達(字 仲達)은 水火木金土의 順序를 事物微漸의 視覺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을 하고 있다. 萬物成形이 以微著爲漸하고 五行先後 亦以微著爲次하니 五行之體에 水最微하니 爲一이오 火漸著하니 爲二오 木形實하니 爲三이오 金體固하니 爲四오 土質大하니 爲五라³²⁾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水火金木土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陰陽의 順序와 相克의 原理를 結合하여 使用하는 말로 陰인 水가 克火하고, 陰인 金이 克木하는데 重點을 두고 呼稱하고 있는 것이다.

30) 上揭書 : pp.48~49.

31) 上揭書 p.39.

32) 書經 朝鮮圖書株式會社藏板 二以會影印 1983 p.460.

V. 洛書의 金火交易에 關한 考察

河圖와 洛書의 가장 큰 차이는 10數圖와 九數圖라는 차이 뿐만 아니라 河圖의 南方 2, 7 火와 西方의 4, 9 金이 洛書에서는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一般的으로 金火交易이라고 부른다. 이의 가장 重要的 理由는 河圖는 生成의 體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洛書는 變化의 用을 說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바탕을 構成하고 있을 때의 順序와 實際로 作用하고 있을 때의 順序가 種種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6氣의 順序에 있어서 主氣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인데 反해 客氣의 順序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로 되는 것 등이 이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이는 靜而守位하는 地氣와 動而不息하는 天氣와의 運行의 順序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境遇이다. 이처럼 天氣와 地氣의 運行順序, 陽道와 陰道の 運行順序, 體와 用의 運行順序 등은 그 變化에 있어서 差異가 나타나게 된다.

洛書에서 金이 南方에 자리하는 가장 重要的 理由는 五行의 다른 境遇와 달리 火와 金은 그 氣運을 서로 相通할 수 있다는 點이다. 이의 原理를 金一夫先生은 正易 十五一言之 金火二頌에서 氣東北而固守하고 理西南而交通³³⁾이라고 하였고 十一歸體詩에서는 火入金鄉金入火오 金入火鄉火入金³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理由는 陰陽五行의 分裂과 統一科程 속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分裂된 陽을 統一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自然은 用意周到하게 南方에서 부터 金이 火를 包圍하기를 始作하는 것이고 西方에서도 여전히 火가 作用하여 統一의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自然은 南方에서 火와 金을 同時에 作用하게 하고 西方에서 역시 金과 火를 同時에 作用하게 하여 創造의 理想을 實現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諸家の 說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朱子는 河圖와 洛書에 있어 數와 位가 세 군데(北, 東, 中央)에서는 모두 같지만 두군데(南, 西)에서 다르니 대개 陽(1, 3, 5)은 바뀔 수가 없고 陰(2, 4)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成數가 비록 西南에서 陽을 이루지만 본래 根本인 陰에서 生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朱子曰 其數與位 皆三同而二異하니 蓋陽不可易而陰可易이니 成數는 雖陽이나 固亦生之陰也니라)³⁵⁾

33) 李正浩 第三의 易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p.21

34) 上揭書 p.60

35) 周易 上揭書 p.43

雲莊劉氏가 이르기를 圖의 1, 3, 5, 7, 9는 모두 奇數이니 陽이지만 1, 3, 5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데 7, 9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또한 天地의 사이에 陽은 動하여 變을 主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陽이 北과 東方에서는 不動하고 西南에서 서로 바뀌는 것은 대개 北과 東은 陽이 始生하는 方位요 西와 南은 陽이 極盛하는 方位이기 때문이니 陽이 나아가기를 主하면 水도 또한 반드시 極에 까지 나아가 그런 뒤에 變하게 된다.(雲莊劉氏曰 圖之一三五七九는 皆奇數니 陽也 로대 而一三五之位는 不易이어늘 七九之位 易者는 亦以天地之間에 陽動主變故也 라 然이나 陽이 於北東則 不動하고 於西南則互遷者는 蓋北東은 陽始生之方이오 西南은 陽極盛之方이니 陽主進하면 數又必進於極而後에 變也라)36)

雙湖胡氏는 이르기를 圖書의 數가 셋은 같고 둘을 다르니 그 가운데 居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지만 오직 西와 南 二方의 數가 서로 바뀌는 것은 金이 火位를 타고 火가 金鄉에 들어가 서로 克制하는 뜻이 들어 있으니 이는 造化에 있어 반드시 바뀌어야 할 理由이다. 二方의 數는 相克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니 二方이 바뀐 뒤에 河圖 左旋相生하고 洛書가 右轉相克하는 것은 造化가 生이 없을 수도 없고 또한 克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니 生이 없으면 或 그칠 수가 있고 克이 없으면 또한 成就할 수가 없는 것이다.(雙湖氏曰 圖書之數 三同二異하니 其居中者는 不可易矣나 獨西南二方之數相易者는 則金乘火位하고 火入金鄉하야 有相克制之義焉이니 此造化所以必易이라 二方之數者은 正以成其相克之象也니 自二方既易之後에 圖則左旋相生하고 書則右轉相克은 造化不可无生오 亦不可无克니 不生則或幾乎熄오 不克이면 亦无以爲之成就也니라37))

河洛演義에서는 河圖는 陰陽의 바뀔 수 없는 正體를 나타내고 洛書는 陰陽의 헤아릴 수 없는 變用을 나타낸다 하였고 또 水와 木은 相生이 되어 그 기운을 相通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居하고 있는 것이고 火와 金은 相克이 되어 그 바탕을 바꾸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어 作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河圖者 陰陽不易之正體也오 洛書者는 陰陽不測之變用也라. 又曰 水與木은 爲相生而通其氣故 因居其位也오 火與金은 爲相克而革其質故로 易位而致用也라38))

이상의 內容에 대한 反證을 近取諸身하여 우리의 人體속에서 찾아 보면 五行의 기운을 木火土金水로 作用하여 肝心脾肺腎의 기운이 左旋이 上升하고 右旋而下降하고 있지만 肺金이 五臟의 최상부에 위치하여 心火를 싸고 있으며 小腸火를 이어서 大腸金이 順서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大腸이 小腸을 外部에서 싸고 있다. 그리

36) 上揭書 p.44

37) 上揭書 p. 44.

38)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驪江出版社, 1993, pp.189~190.

고 입속을 보더라도 火에 속하는 舌은 경구개와 연구개에 싸여서 作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현실속에 드러난 金火交易의 실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VI. 結 論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 理論에 關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河圖와 洛書에 대한 언급은 B.C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夏, 殷, 周의 歷代 王朝와 孔子가 극히 重視하였으므로 河圖 洛書가 後代에 만들어 졌고 無價値하다는 說은 마땅히 否定되어야 한다.

2. 河圖와 洛書는 모두 물에서 出現하였고 聖人께서는 自然이 啓示해 준 天垂象한 모습을 포착하여 그린 天意의 所産으로 人爲가 아닌 點에 그 重要한 特徵이 있으며 모두 數로 되어 있는 이유는 數는 理와 象을 把握하는 客觀的인 도구가 되며 數 자체가 眞理의 대변자가 되는 東洋哲學의 特徵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河圖는 生數가 成數를 統率하여 天地生成의 體를 보여주고 있으며 洛書는 陽數가 陰數를 統率하여 天地變化의 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河圖는 10土의 中心作用에 依한 萬物 統一의 過程을, 洛書는 5土의 中心作用에 依한 萬物 發展의 過程을 나타내고 있다.

4. 河圖의 中心數의 合이 15이고 洛書의 縱橫 大各선의 合이 15라는 것은 本體와 現象이 如一하며 天地의 모든 變化가 15數에 매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河圖와 洛書에는 萬物의 本體인 太極이 陰陽, 四象, 八卦의 順序를 發展해 나가는 象이 提示되어 天地創造의 설계도로서 그리고 變化의 作用圖로써의 象이 遺漏없이 提示되어 있다.

6. 河圖는 陰에, 洛書는 陽에 配屬된다. 그리고 未生之前을 先天이라 하고 已生之後를 後天이라 할 때 河圖가 先天圖가 되고 洛書가 後天圖가 되지만 現象界의 時間代를 前半期와 後半期로 나눈 先後天에 있어서는 洛書가 先天象이 되고 河圖가 後天象으로 바뀌게 된다.

7. 河圖와 洛書에는 陰陽, 五行의 絶對性, 循環性 등이 表示되어 있고 이밖에 陰陽의 對立性, 相輔性, 平衡性, 消長性, 互根性, 轉化性, 分容性, 創造性 등이 나타나고 있다.

8. 五行은 陰陽이 流行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마디로써 相生과 相克의 原理

가 있다. 이중 河圖는 相生의 原理를 주로 나타내고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주로 나타내지만 裏面에는 河圖에 相克의 原理가, 洛書에는 相生의 原理가 提示되어 相生과 相克은 同時的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 洛書에서 南方의 火와 西方의 金이 交易되어 있는 이유는 體와 用의 役割이 다르며 또한 統一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는 內容인데 實際的으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人體 곳곳에 現實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 以上の 研究成果를 바탕으로 더욱 進展된 研究가 進行되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書經 : 朝鮮圖書株式會社編纂, 二以會影印, 1983.
2. 論語 : 世昌書館, 1980, 卷九.
3. 周易 : 大田 學民文化社(貞篇), 1990.
4. 漢書五行志 : 班固 中國, 中華書局.
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書苑堂, 1976.
6. 楊力 : 周易과 中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1993.
7. 李正浩 第三의 易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8.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驪江出版社, 1993.